

|                                                                                                                      |                                                                                                                                           |                                                                                                                          |
|----------------------------------------------------------------------------------------------------------------------|-------------------------------------------------------------------------------------------------------------------------------------------|--------------------------------------------------------------------------------------------------------------------------|
| <b>리버데일 한의원</b><br>한의사 : 임 베로니카<br>3263 Johnson Ave.<br>Bronx, NY 10463<br>(718)796-0267/ 3636                       | <b>맥 한의원</b><br>한의사 : 김 글라라<br>침, 한약으로만성병치료<br>224E 204St Bronx<br>(718) 563-1209                                                         | <b>이준승치과</b><br>Medicaid Accepted<br>503 S Broadway #250<br>Yonkers NY 10705<br>(914) 376-4033                           |
| <b>뉴저지동해수산</b><br>EastSeafood Restarant<br>445 Grand Ave<br>PalisadsPark, NJ07650<br>Tel 201-461-4447                | <b>뉴욕라이프보험</b><br>김 여경(헤레나)<br>(203) 629-0266(O)<br>각종 보험, 투자                                                                             | <b>리사 휴대폰</b><br>국내무제한, 한국5시간<br>월40\$ (세금포함)<br>(718)205-1200 Kim                                                       |
| <b>중앙 장의사</b><br><b>하 봉 호</b><br>(718) 353-2424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br>Century 21 Royal<br>부동산 Sales, Rental<br>Mija (세실리아) Son<br>(914)310-6990(C)                                                | <b>뉴욕정비(브롱스)</b><br>2801Webster<br>(718) 295-3252                                                                        |
| <b>통증 중재의학</b><br><b>이한식 제통전문병원</b><br>신경 차단술<br>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br>(718) 224-1600<br>43-24220Pl.Bayside, NY 11361 | <b>아리랑 여행사</b><br>ARIRANG TRAVEL SERVICE<br>INC. 표 : 김 윤 환(Francisco)<br>영 희(Julie)<br>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br>1-212-563-3350<br>1-800-223-6225 | <b>김태복 통증 한의원</b><br>통증 전문 39 W 32 St<br>Suite300 맨 하 단 (212)<br>947-8382(B) 뉴저지 (201)<br>592-5514(H)                    |
| Edward D Jamis, Jr<br><b>장 의 사</b><br>조종하고 주차, 교통편리<br>베이사이드 노던 209가<br>(718) 224-2390<br>(888) 224-6088             | <b>정일현(스테판노)지과</b><br>코네티컷 대학교 졸업<br>일리노이스(시카고병원 앞)<br>(718)426-4343, (주자문비)<br>베이사이드 718-352-3434                                        | <b>HOPE AGENCY INC.</b><br>희망 보험사<br>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br>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br>(718) 961-5000 김 모세                         |
| <b>FirstAmerican Landing</b><br>부동산매매에서 모기지<br>대출까지주택상가 사업<br>체) 정영오 루가<br>201-461-9999<br>917-232-8890              | <b>김진상 3S 교정치과</b><br>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br>◎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br>◎ 북부 NJ : (201) 840-1123<br>◎ 중부 NJ : (732) 548-4848<br>김 진상 (빈센트)   | <b>김철 공인 회계사</b><br>Young & Jullan, LLC<br>150-05 노던 (150가)<br>2F1 (플러싱)<br>(718)888-1217                                |
| <b>컴퓨터 출장수리</b><br>감시카메라/인터넷<br>전화설치/수리<br>이홍석(사도요한)<br>(201) 336-2522                                               | <b>핑크 미용실</b><br>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br>3135 Grand Concourse<br>(between 204 & 205 St.)<br>Tel. (718) 563-6997                               | <b>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b><br>월-금 8:00 AM-4:30 PM<br>일 9:00 AM-2:00 PM<br>(718)353-7676<br>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
| <b>센츄럴 헤어살롱</b><br>(구 브롱스소망이발관)<br>남, 여 이발 및 미용<br>747센츄럴파크(100번도로)<br>(914) 725-0747                                | <b>김영관 회계사무소</b><br>● 개인 / 법인 세무보고<br>면 회사설립 사업허<br>공증, 번역 종업원상해<br>(718)961-4024(2)                                                      | <b>광고모집</b>                                                                                                              |

# 북 부 뉴 욕

##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마태오 15, 21 - 28)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 연중 제20주일

### ㄹ 입당송

(시편 84(83), 10-11)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사옵나.

<대영광송>

### ㄹ 제1독서 (나는 이방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6, 1.6-7)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리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  
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ㄹ 화답송

(시편 67(66), 2-3.5.6과 8(● 4))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1.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2.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3.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 ㄹ 제2독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1, 13-15.29-32)

형제 여러분,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붙이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15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9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0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31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32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ㄹ 복음 환호송

(마태 4,23)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ㄹ 복 음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 21-28)

그때에 21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22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23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24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  
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25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26 예수님께서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8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ㄹ 영성제송 (시편 130(129),7)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전례

|         | 미사해설 | 제1독서 | 제2독서 | 신자기도 |
|---------|------|------|------|------|
| 8/14 8시 | 홍 명숙 | 함 봉국 | 함 경옥 | 김 미수 |
| 11시     | 최 일환 | 이 준섭 | 이 회양 | 최 금연 |
| 8/21 8시 | 김 철중 | 김 민환 | 김 정옥 | 김 미수 |
| 11시     | 이 회양 | 김 덕현 | 김 정옥 | 박 은영 |

8/15성모승천 이 창섭 최 일환 최 금연 이 종숙

복 사 : 이 종재 & 정 무원 최 모세 & 엄 국진  
 봉헌자 : 김만석&조현구 가족 다음주 : 주봉길&신희원 가족  
 헌금봉사 : 사랑하울 어머니 Pr 다음주 : 평화의 모후 Pr  
 운전봉사 : 김 민환 다음주 : 한 광희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윤영자, 윤정상(생미사) : 현(김) 데레사 봉헌  
 박카타리나[애자](생미사) : 신마리아[춘화] 봉헌  
 최카타리나[연월](생미사) : 조로물로[강희], 이클레멘스[준섭] 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부모님 기일(연미사) : 강마가렛[순연] 가족봉헌  
 한성희(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가족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아네스, 박다니엘 봉헌  
 강바울라 기일(연미사) : 황인서 봉헌  
 이근배(연미사) : 한프란치스카[희자], 이클레멘스[준섭] 가족봉헌  
 조상님(연미사) : 김마태오[창규] 봉헌  
 김마리아[명수](연미사) : 손세실리아, 손아브라함[달구] 봉헌  
 윤요셉[진호] 기일(연미사) : 윤안토니오[기윤] 봉헌  
 정복동(연미사) : 정바오로[철수] 가족봉헌  
 김요셉[태기](연미사) : 김미애 가족, 김종자 가족봉헌  
 윤펠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한프란치스카[희자] 가족봉헌  
 임유리안나(연미사):문아네스[옥희],한프란치스카[희자]봉헌  
 아버지 기일(연미사) : 조데레사[순덕] 봉헌  
 홍종식(연미사) : 홍펠릭스 가족봉헌  
 불쌍한 연옥영혼(연미사) : 한빅토리노[성천] 봉헌

### 성가

입당 : 어두움을 밝히소서 (성가 20)  
 봉헌 : 복되신 마리아 (성가 240)  
 성체 : 주님의 작은 그릇 (성가 180)  
 파견 : 성모 승천 (성가 259)



### 교회 소식

#### (1) 성모승천 대축일

내일15일(월)은 성모승천 대축일이며 아울러 조국 대한민국 해방절입니다. 저녁 8시30분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못오시는분은 가까운 성당의 미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 본당장학금 수여식

5명의 본당 (조중훈(레오), 이중빈(폴), 김 찬(데빗), 최원석(모세) 윤정훈(잔) 의 장학금수여식이 오늘 11시미사중에 있습니다. 모두 축하하도록 합시다.

#### (3) M.E. (행복한 주말부부)

제66차 부부주말 피정이 9월3일(토)-5일(월)에 Wyndham Garden Hotel, Newark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대표부장 윤화(알폰소) 914-523-9887 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 교구청 기금(Stewardship Appeal)

교구청기금을 아직 미납 하신 분은(교무금 1달치) 회계연도 8월말 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 (5) 성가대 솔로리스트(윤마리아) 음악회

솔로리스트 윤징자 마리아의 음악회가 오늘(주일) 11시 미사 후 12시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점심제공)

#### (6) 본당 골프대회

청소년 기금마련을 위한 본당 골프대회가 다음주21일(주일)

12시부터 스프레인 레이크 골프장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1인당 \$100이며 신청은 본당 골프회장 한치남(에드워드)

형제님이나 총무 방문덕(막시모)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 (7) 부주임신부님 휴가

부주임신부님 께서, 이달말29(월)-9월9일(금) 까지 휴가를 가십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8) 본당 활동단체 휴가

8월한달 은 단체모임이 없습니다. 9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재충전하셔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 (9) 본당 모임

● **꾸리아 월례회의**가 28일(주일) 11시미사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연령회** 모임이 28일(주일) 11시 미사 후(12시30분) 센타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 **이번달(8월)** 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동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다음달(9월)은 **중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담당구역은 의자와 테이블을 접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1,776.00

교육헌금 : \$ 3,152.88

교 무 금 : \$ 820.00

이종언(8) 이효순(완남) 주성문(7-8) 강기순(1-5)

정진웅(1-8) 박경순(7) 로병건(8) 이갑조(8)

김미애(4-5)

Stewardship Appeal : \$200.00 누계 : \$ 8,255.00

윤광석 홍성찬 이영숙 윤익수 이철호 이효순

### 성모님의 사랑과 광복절

한국사람들에게 8월 15일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즉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에서는 8월 15일이 성모승천을 기념하는 대 축일이다. 그리고 보면 한국인들에게 8월 15일은 매우 뜻깊은 날이고, 축하해야 할 날이다. 그래서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승천 축일에 해방시켜주셨다고 말하면서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한다. 한편 8월 15일은 한국인에게 말할수없이 잔인했던 일본이 벌을 받아서 망한 날이고, 한국은 드디어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그 잔인함에서 해방이 된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나도 얼마전까지만해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사람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참 기도를 많이 했구나, 성모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본을 벌하시고, 한국을 해방 시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언젠가 가톨릭 텔레비존에서 일본 가톨릭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들었는데 8월 15일이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신부님께서 선교를 하시기 위해 처음으로 일본 땅에 발을 드러놓으신 날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날을 특별히 뜻깊은 날로 기념한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은 이나시오 성인과 함께 예수회를 창설하신 분이시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시며 선교를 하셨는데 일본까지 가서서 선교를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보면 성모님께서 우리 한국을 일본보다 더 사랑하셔서 일본을 망하게 하시고 한국을 해방시키셨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성모님께서는 한국, 일본을 똑 같이 사랑하시고, 두 나라에 평화를 위해서 일본은 항복으로 이끄시고, 동시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러면 그렇지 성모님께서 어찌 한국을 더 사랑하셔서 일본을 치실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일본이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항복을 해야만 했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의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것 같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물론 주님께서도 그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고 믿을 때가 있다. 그렇지만, 성모님께서 누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렇게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는다. 성모님께서 그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는 덜 사랑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 다른 편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성모님의 뜻이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세상 어머니들도 형제들이 다투면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물며 성모님께서야 오죽이나 공평하시겠는가? 때로는 못된 놈 벌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성모님께서는 안 들어주시겠지? 모두다 돌보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면 성모님께서 더 잘 도와 주실 것 같다. 일본이 항복하고, 한국이 해방되는 그런 식으로... 우 똥은